

2024. 1. 16.(화)	보도자료	담 당	김 동 립
부산광역시관광협회	www.bta.or.kr	전 화	051-463-3111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60주년 기념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60년사」 발간

- ◆ 1963년 7월 부산직할시관광협회 설립, 60주년 맞아 관광협회 역사와 부산관광을 재조명
- ◆ 부산관광 60년 사진, 관광산업 발전사, 관광협회 60년의 발자취, 부산관광인 언론에 비치 부산 관광, 각종 분야별 전문가 자료 등 역사성과 사료적 가치 기반 구성
- ◆ 부산광역시관광협회가 걸어온 길을 각종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되돌아보고 부산 관광 역사와 미래 관광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 마련
- ◆ 회원사는 물론 부산시,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전국시도관광협회, 부산지역 대학 및 도서관(부산 시내 도서관 포함) 등을 대상으로 800여권 배포

부산광역시관광협회(회장 이태섭)는 설립 60주년을 맞아 「부산광역시관광협회 60년사」를 발간하였다. 1963년 7월 부산직할시관광협회가 설립된 이후, 코로나 등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관광업계와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오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을 통해 부산지역 관광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1950년 국가 전체가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되고 피란민들의 생계 터전이 되었던 부산에서, 관광산업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관광입국(觀光立國)”, 관광산업으로 나라에 보은하자는 “관광보국(觀光報國)”을 가치로 지난 60년 동안 이어진 부산 지역 관광인의 노력이 축적되어 현재 부산관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번 부산광역시관광협회 60년사 발간은 협회가 지나온 역사를 돌아켜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사진으로 보는 부산관광 60년 발자취와 학계·언론계·원로 관광인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한국관광산업 태동과 성장, 오늘날의 한국관광산업 현황을 재조명하고, 이에 함께 걸어온 부산관광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관광산업, 관광자원, 관광정책, 부산관광산업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부산관광 60년을 대표하는 부산 원로관광인 좌담회를 통하여 부산관광산업 부침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옛 추억들과 관광협회와 부산관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좌담회 등 부산 관광산업에 대한 제언들을 통하여 협회가 갖게 될 역사성과 사료적 가치, 그리고 회원사들을 위한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협회 장기 숙원사업인 글로벌 부산관광서비스센터 건립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관광협회 60년, 부산관광산업 60년 그리고 관광산업 비전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3년 7월 부산광역시관광협회가 설립된 후 그동안 부산광역시관광협회 관광 백서를 발간할 기회가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부산광역시관광협회 6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60년사 발간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로 관광인 좌담회에 참석해 많은 옛 기억을 되살려 관광업계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부산의 원로 관광인 선배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60년간의 한국 관광산업과 부산 관광산업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대안에 대해 옥고를 써 주신 많은 교수님,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원사 대표님들, 여러 필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관광협회는 부산관광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 등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도 회원사 여러분과 같이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안 동거동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부산광역시관광협회 60년사」 발간은 60년간 부산관광과 관광협회가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부산 관광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관광협회는 그동안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게 일본·중국·대만 등 3개 국가의 13개 도시 관광협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교류 및 우호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관광산업이 일시 정지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부터 부산광역시관광협회는 민간 교류차원에서 먼저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복지·환경·교통·문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항상 홀대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관광산업은 3년 이상 직격탄을 맞으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은 물론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코로나 지원 대책을 요청하는 관광인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 공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은 등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는 다소 미흡합니다. 지역관광산업 활성화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주력산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부산의 미래 먹거리 또한 관광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관광인들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바꾸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부산은 한국의 유일한 국제관광도시이며, 외국관광객들이 오고 싶은 도시 순위에 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인들이 부산 관광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부산광역시관광협회 60년사」는 부산 관광의 과거와 현재를 잘 분석하여 미래의 부산 관광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관광협회 60년사」 발간에 온 힘을 쏟아 주신 강석환 발간위원장을 비롯한 장순복 부회장님, 최부림 부회장님과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60년사에 광고를 주신 광고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산광역시관광협회는 우리 관광인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글로벌 부산관광서비스센터' 건립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서울에도, 제주에도 있는 원스톱 관광서비스센터를 우리 부산에만 없다는 것이 우리 부산의 위상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산광역시관광협회 60년사 발간에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와 부산광역시관광협회는 부산관광산업의 밝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회원사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 이태섭

참 고 2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설립 60주년 기념 「60년사 표지」

